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01 - 024

성경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타자화 구조 :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 중심으로

채민*

본 연구는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신성-속성 개념을 기독교 신학에서의 장애 인식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장애 신학의 관점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기독교 신학은 신성 개념을 특정한 신체적, 정서적 조건에 기반하여 구성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은연중에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위치에 놓여 왔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석학적 접근을 취하되, 엘리아데의 상징 개념에 주목하여 성경 본문 내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상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서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상징비평(symbolic criticism)과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병행하였다.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신성한 질서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신학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어서 장애 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과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 내 장애 배제의 상징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장애학과 신학간의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장애인의 온전한 포함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르체아 엘리아데, 신성-속성 개념, 장애 신학, 장애와 종교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

I. 서론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함(sacred)과 속성(profane)의 구별은 종교적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구조화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초월적 세계와 연결된다고 보았다(Eliade, 1959).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신성한 공간은 신적 현현(hierophany)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초월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속성의 공간은 신성한 질서가 부재한 일상적이며 무질서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임형권(2018)은 엘리아데의 종교이론이 현상학적·해석학적 종교 연구에서 성스러움을 지나치게 보편화하고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이론이 종교의 세속화 과정에서 원형적 종교성을 회복하는 데 실천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아데의 '성과 속'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종교적 신성의 본질과 그것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신혜진(2000)의 연구에서는 신성과 거룩의 개념을 비교하며 예배형식이 신앙 주체자의 신앙 대상에 대한 사고와 행동 양식의 표현인 동시에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 '경건성'이 표상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서희, 신호영(2025)은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공간 개념에서 '중심'이라는 성역이 신이 현현하는 장소로서, 민속 신앙에서는 제의적으로 구축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호재(2019)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공간이 반드시 종교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게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엘리아데의 개념을 통해 종교적 공간과 시간의 형성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전제하거나 그로 인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신성 개념이 신체적 완전성, 정상성, 정결함과 같은 전통적 기준과 결합할 경우, 장애인은 신성한 질서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경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은 기독교 내에서 장애를 해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본문들이며, 그 해석 방식은 전통 신학과 장애신학 사이에서 상이하게 작동한다.

기독교 신학 내에서 장애와 관련된 신학적 논의는 서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신학(Disability Theology)이라는 명칭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예수의 치유 서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타자화해 온 전통 신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반면 한국 신학계에

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후반 이후에야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김홍덕(2010)은 『장애 신학』에서 장애인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목회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기독교 공동체 내 포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채은하(2020)는 성경 내 장애인 호칭이 종교적 타자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언어 구조에 내재된 배제 기제를 해석학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특히, 최대열(2011)은 레위기 21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제사장에서 배제하는 본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문자주의적 해석이 장애인을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이자 신학적 타자로 바라보며, 신체적 결함을 죄나 부정과 동일시하는 종교적 해석 틀이 구조적 배제를 정당화해 온 방식을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가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신성 공간 개념과 제의적 경계 설정 이론을 통해, 장애인이 신성한 질서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 구조의 재해석 가능성을 모색하는 접근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신학적 해석학의 틀 안에서 상징비평과 담론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상징비평은 엘리아데가 제시한 신성 개념이 본문 내에서 어떻게 특정 신체에 신성성을 부여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특히 레위기과 이사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전함’, ‘정결함’ 등의 신체 상징은 장애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상징 구조로 작용한다.

한편, 담론분석은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 관련 언술이 사회적 담론과 신학적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정체성과 타자화를 형성하는지를 밝히는 데 유효하다. 요한복음 9장의 언어는 장애를 죄, 실패, 결핍으로 해석하는 고정된 신학적 담론을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장애 관련 담론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되었으며(김은아, 최송식, 2021),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 목적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구성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을 해체하고, 그 속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독교 신학과 장애학 간의 학제 간 대화를 촉진하며, 배제의 상징 구조를 넘어서는 포용적 신학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과 기독교적 적용

1)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종교학과 신화 연구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한 학자로,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 중 하나는 신성(sacred)과 속성(profane)의 구별이다(Eliade, 1959). 엘리아데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신성한 영역과 속된 영역으로 나뉘며, 종교적 인간은 신성한 공간과 신성한 시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보았다. 즉,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은 신성한 차원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구조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 개념을 통해 구체화 된다. 신성한 공간은 신적 현현(hierophany)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로운 지점이 된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하여 초월적 의미를 지니며, 성전(temple), 제단(altar), 성소(sanctuary)와 같은 장소는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반면, 속성의 공간은 신적 질서가 개입하지 않는 무질서하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Eliade, 1959).

엘리아데의 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제공한 알렌(Allen, 1978)은 엘리아데의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모든 성현(hierophany)은 역사적으로 표출되지만, 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임형권, 2018, p. 75). 즉, 인간이 경험하는 신성함의 패턴은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 조건, 사회 구조, 정치적 상황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보편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아데는 역사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이 신성한 의미를 경험하는 구체적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 종교적 질서가 구축된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적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구현하는 중심 개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공간 개념이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될 경우, 종교 공동체는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공간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들은 신성한 공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신성한 공간의 형성과 유지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을 종교적 질서의 중심

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레위기 21장 16~24절에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에서 배제되는 방식의 신학적 기원을 보여준다. 반면,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언어적 장애를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장애를 신성한 질서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신성한 공간 개념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향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엘리아데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그 개념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성한 공간의 구조화'(spatial hierophany)와 '제의적 경계 설정' 개념을 해석의 중심 틀로 삼는다. 엘리아데는 신성한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닌, 존재의 중심이자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능력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몸을 결핍의 몸으로 상징화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종교적 공동체가 공간과 신체를 구분짓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도구가 된다.

특히, 엘리아데가 주장한 '중심의 발견'과 '제의적 구획' 개념은, 신성한 공간에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구조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 본문에 나타난 장애인의 위치를 해석하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에서 어떻게 배제되거나 재구성되는지를 공간적 상징 체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레위기 21장에서 장애인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신성한 경계 설정,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애인의 수용, 요한복음 9장에서 신성 개념의 전복, 고린도후서에서 약함의 재해석 등은 모두 '신성한 공간의 위계화'와 '접근 자격'이라는 구조적 틀을 통해 일관되게 분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신성 개념이 특정 신체에 부여되는 방식이 단순한 신학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의 상징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장애인의 위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신학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신성한 시간과 영원한 회기

역사 비평적(historico-critical) 접근법을 사용하여 성서를 연구한 종교사학파의 대표적 인 학자인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바벨론 창조 신화의 영향을 받은 비역사적 전설로 해석하였다(Gunkel, 1901). 반면,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서술로 해석하는 접근법을 넘어서, 거대한 내러티브적 상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성한 시간과 속성의 시간을 구별

하며, 신성한 시간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적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보았다(Eliade, 1959). 김병욱(2014)은 네러티브(narrative)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포함하며,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과 특정한 장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신성한 시간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신성한 시간(sacred time)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며, 특정한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 전통에서 성례전(성찬식, 세례)과 같은 의례가 신성한 시간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Eliade, 1978). 신성한 시간은 단순한 연속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환적(recurrent)이고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며, 신앙 공동체는 특정한 의례를 통해 신성한 시간을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은 종종 이사야 35장 5~6절과 같이 장애를 치유와 연결하면서 장애인을 신성한 질서에서 미완의 상태로 간주하는 해석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최대열, 2015). 이 본문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종말론적 치유를 장애인의 궁극적 구원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반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가 선천적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거부하고,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장애를 단순한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몸과 신앙적 경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약함(가시)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신체적 결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장애를 재해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성한 시간 개념이 기존의 신체적 완전성을 이상화하는 종말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장애를 신앙적 의미의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 신학(Disability Theology)과 신성한 질서의 재구성

1) 장애 신학의 개념과 발전

장애신학(Disability Theology)은 1990년대 이후 서구 신학계에서 점차 독립된 신학적 분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 출발점은 대체로 낸시 아이슬랜드(Nancy L. Eiesland)

의 선구적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1994)에서 장애인의 몸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한 예수가 여전히 못 자국을 지닌 몸으로 나타났다는 장면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하나님(The Disabled God)”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를 치유의 대상이나 결함으로 간주하던 기존 신학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으며, 장애를 신성함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적 전환점을 형성하였다(Eiesland, 1994).

아이슬랜드(Eiesland, 1994)에 따르면, 장애는 단순한 약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공동체 성과 연대, 그리고 해방의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자원이다. 이는 장애신학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복지적 신학을 넘어서, 신학 전체를 재구성하는 급진적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이후 토마스 레이놀즈(Reynolds, 2008)는 『Vulnerable Communion: A Theology of Disability and Hospitality』를 통해, 장애를 공동체 내에서 ‘환대(hospitality)’와 ‘취약성(vulnerability)’의 윤리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신학의 중심 가치로서 상호의존성과 타자성의 수용을 강조하였다. 아모스 용(Yong, 2011)은 오순절주의 신학에 기반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장애인의 영성과 공동체 포용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신학의 성령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한국 신학계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 장애신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김홍덕(2010)은 『장애신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성서 내 장애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최대열(2015)은 장애신학이 인간 이해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을 강조하였다. 정아영(2023)은 장애신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동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신학으로 오해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계보가 있는 장애신학은 전통 신학이 전제해 온 건강, 완전성, 능력 중심의 가치 체계에 질문을 던지며, ‘차이로서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와 공동체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는 단지 소수자를 위한 윤리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신학의 존재론적 기반 자체를 전환하려는 실천적 이론이다. 특히 성서의 구약 본문은 장애에 대한 기존의 배제적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윤리적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레위기 19장 32절은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통해, 신체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장애인을 길에서 그릇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는 구절을 통해 공동체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절은 장애인을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전통적 해석을 넘어, 공동체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위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장애신학은 성서 해석에 기초하여 ‘장애와 역설(paradox of disability)’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인간의 약함과 취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신학적 인식이다. 다시 말해, 장애는 신의 현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실존적 양태로 이해함으로써, 신학이 포용적인 인간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2) 장애와 신성한 질서의 재구성

기독교 신학에서 장애는 종종 구원의 대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 혹은 신성한 질서와 분리된 상태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김홍덕(2010)은 야곱의 장애 경험을 분석하며, 야곱이 장애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축복의 표징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야곱의 장애가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적 유산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최대열(2015)은 ‘낙인화의 전도(reversal of stigma)’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장애를 신성함과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였다.

이재서(2013)는 장애 신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신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애 신학이 단순히 신앙 공동체 내 장애인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대열(2006)은 장애 신학이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해 온 성서 본문을 재해석하면서, 장애인의 신앙적 위치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야곱의 장애 서사, 바울의 장애 신학, 바디메오의 치유 서사 등을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예수는 단순히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한 명의 온전한 신앙적 주체로 인정하였다. 장애 신학은 이를 ‘장애인 권익 옹호의 첫 모델(first model of disability advocacy)’로 평가하며, 신성한 공간 속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신약성경에서도 장애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본문이 존재한다. 정아영(2023)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가 선천적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거부하고,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신체적 약함이 오히려 신앙적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가 신성함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본문들은 신성한 질서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학에서는 장애 신학이 여전히 장애인을 특정한 목적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조한진, 2011). 즉, 기독교 신학은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야데가 말한 신성과 분리된 몸으로 장애인을 간주하는 신학적 해석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는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몸과 감각적 존재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Brock, 2021). 이는 물리적 교회 건축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신학 개념 자체가 장애인의 실존적 경험과 몸의 차이를 중심에 두고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장애 신학의 관점에서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신학적 개념이 장애인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포함했는지를 검토하고, 신학적 분석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비판적 장애학 접근을 활용하여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실천과 공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 신학적 재해석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장애인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한다. 문헌 연구는 엘리야데의 신성-속성 개념과 기존 신학에서의 장애인 위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엘리야데의 『The Sacred and the Profane』(1959)을 중심으로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엘리야데는 신성한 공간이 신적 현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해되며,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성전, 교회 공간, 예배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한 사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성경 본문은 장애신학과 관련된 국내의 핵심 문헌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거나 분석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Amos Yong(2011), Creamer(2009), 그리고 채은하(2020), 최대열(2011) 등의 국내 신학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본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성 개념과 신체적 조건이 교차하거나, 장애에 대한 상징적·담론적 구조가 드러나는 다섯 본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출애굽기 4장, 레위기 21장, 이사야 35장, 요한복음 9장, 고린도후서 12장은 모두 장애와 타자화 구조, 신성 재구성의 가능성을 고찰할 수 있는 대표 본문들로, 기존 장애신학의 논의 흐름과 이론적 일관성을 갖는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는 본문 분석을 통해, 성서가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의 언어적 장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는 방식, 레위기 21장 16~24절에서 장애인이 제사장직에서 배제되는 규정, 이사야 35장 5~6절에서 종말론적 치유와 장애인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분석한다. 또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가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신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고찰한다.

2. 신학적 분석

본 연구는 신학적 분석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신학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장애인을 어떻게 위치 지어 왔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하며, 신성한 질서를 구성하는 신학적 논리가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신성한 공간 개념이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 공간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교회 건축과 제의 공간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장애인이 신성한 공간에서 주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검토한다. 레위기 21장 16~24절이 신성한 공간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

동했는지, 출애굽기 4장 10~12절이 신성한 공간에서 장애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 구원과 연결되면서 장애인의 종교적 경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과 완전함이 특정한 신체적 상태와 연결되면서, 장애인이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는 신학적 해석이 등장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사야 35장 5~6절이 종말론적 치유와 연결되는 방식과, 요한복음 9장 1~3절이 장애를 신성한 질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성서적 본문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을 시도하며, 장애인이 기존 신학적 해석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바다메오 치유 이야기가 신성한 질서를 확장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체적 약함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장애 신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3. 비판적 장애학 접근

본 연구는 비판적 장애학의 관점을 활용하여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신성한 질서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먼저, 조한진(2011)의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을 바탕으로 장애학 관점에서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공간과 실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장애학은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종교적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이 장애인을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경험과 신성한 공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 지어졌는지를 연구한다. 장애인이 교회 예배와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학적 장벽이 존재했는지를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신성한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를 전제할 경우, 장애인의 시간이 어떻게 주변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학 관점에서 신체적 완전성을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하는 종말론적 해석이 장애인의 신학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장애인의 시간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신학적 해석이 장애인의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분석하고, 신성한 질서를 장애인의 몸과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가능

성을 제안한다. 다음 <표 1>은 연구 방법에서 사용한 문헌 연구, 신학적 분석, 비판적 장애학 접근의 분석 틀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방법 분석 틀

분석영역	분석 대상	분석 방법	관련 성경 구절
문헌 연구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 성경 내 장애 관련 본문, 장애 신학 주요 연구	성경 본문 해석, 신학 연구 문헌 검토, 장애 신학 주요 논의 분석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
신학적 분석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형성, 장애인의 위치, 성경 본문의 신학적 해석	신성한 질서 내 장인의 위치 분석, 신학적 개념의 재구성	
비판적 장애학 접근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공간과 실천에서 작동하는 방식	장애인의 경험 중심 분석, 종말론적 해석의 재구성, 사회적 배제 구조	

IV. 결 과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신학적, 장애학 관점에서 재해석할 경우, 장애를 포함하는 신성한 질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몸과 신성한 공간에서의 배제

기독교 신학 전통, 특히 레위기 율법에서 신체적 ‘완전성(perfection)’은 오랫동안 성스러움(holiness)과 종교적 순결(purity)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Eiesland, 1994; Creamer, 2009). 대표적으로 레위기 21장 16~24절은 제사장의 자격 조건으로 특정한 신체 기준을 명시하며, “눈먼 자, 절름발이, 지체가 길거나 짧은 자” 등 장애를 지닌 이들이 제사장직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결합 자체가 신성(sacredness)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은 장애인의 몸을 정상성과 완전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몸’, ‘제의적으로 부정한 몸’으로 낙인찍는 담론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중세 기독교뿐 아니라 현대 일부 교단에서도 여전히 상징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배 인도자, 제단 위 사역자, 성찬 집례자의 자격에서 신체적 형상과 표현 능력이 거룩함의 표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은 장애인의 종교적 주체성을 제한하는 신체 정치(biopolitics)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Eiesland, 1994, p. 74).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성한 공간을 인간 존재를 우주적 질서와 연결하는 축(Axis Mundi)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성스러운 공간은 인간 존재를 우주적 질서와 연결시키는 축이며,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구별짓는 상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신성한 공간의 구획은 곧 세계 속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보았다(Eliade, 1959, pp. 20~21). 이러한 해석은 신체적 규범성과 공간 구성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며, 장애인을 배제하는 공간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조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안에는 이러한 신체 중심적 규범에 균열을 내는 본문도 존재한다.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언어적 장애(possible speech disorder)를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를 거절한다. 이는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실천의 본질적 전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본문으로, 신체적 비정상성에 근거한 배제를 신학적으로 전복하거나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 실천신학의 일부에서는 이 구절을 보다 급진적으로 해석하여, 장애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한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장애를 통한 소명 및 신적 메시지의 매개로 보는 입장도 제시된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의 몸이 신성한 메시지를 담지할 수 있는 매체로 기능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장애를 신의 도구로 환원하는 위험성도 내포한다(Brock, 2021).

이러한 신체 규범은 물리적 공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 교회 예배 공간의 많은 구조는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강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부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미제공 등의 요소는 비장애 중심의 신체 기준이 여전히 공간의 기준으로 작동함을 방증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몸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잠재적 회복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적이나 치유의 대상으로만 이해되는 구속적 시간 프레임 속에 장애인을 고정시킨다. Fiona Kumari Campbell(2009)은 이를 “장애인의 몸은 일시적이며 곧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신념”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장애인의 현재적 존재성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하였다(Campbell, 2009, p. 5).

또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신성한 가능성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이는 장애를 새로운 신학적 가능성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해석의 기반이 되며, 장애인의 종교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신체적 기준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닌, 종교적 공간과 실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장애 신학은 이러한 신체 규범성을 해체하고, 다양한 신체성을 수용하는 종교적 공간과 실천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공간의 물리적 개조를 넘어, 신성함의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는 급진적 신학적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2. 신성한 시간과 장애인의 위치

연구 결과,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 완성과 연결되면서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사야 35장 5~6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간주하는 종말론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을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장애인의 신앙적 경험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한 것은 기존의 종말론적 치유 담론과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를 신성한 질서 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한 것은 장애를 종말론적 치유의 대상이 아닌 신앙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울의 논리는 기존의 신성한 시간 개념이 장애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신앙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장애 신학적 해석의 재구성

연구 결과, 기존의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신성한 공간 개념의 확장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공간을 단순히 신체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요한복음 9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신성한 시간 개념의 재구성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를 전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몸 그대로 신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간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인정한 점은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도 신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일 뿐, 여전히 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는 존재로 인정한 점은 신앙적 의미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장애학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조한진, 2011).

셋째,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신학적 해석은 신체적 완전성을 신성함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장애 신학은 이를 탈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명기 27장 18절에서 장애인을 속이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규정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성서적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신학적 의미가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현대 장애학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해석이 장애인을 지극히 대상화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돌봄의 형식은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강화하며,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장애인을 공회와 자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 신학이 신성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향후 신학적 논의에서 장애인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해석은 남아 있으며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과 경험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 신학적 접근을 통해 신성한 질서가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밝혔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신학과 장애 신학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의 재구성이 신학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의 몸과 신성한 공간에서의 배제에 관한 논의

엘리아데가 언급하고 있는 신성한 공간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다. 성경에서 레위기 21장 16~24절은 하나님께 제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언급하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간 속 배제는 신체적 완전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최대열, 2015). Yong(2011)은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과 결합하면서 장애인의 종교적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언어적 장애를 인정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 장면은 신성한 공간이 신체적 기준을 넘어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iesland(1994)는 『The Disabled God: Living into the diversity of Christ's body』에서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몸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바 있다. 즉,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성한 공간을 단순히 '정결하고 완전한 몸'만이 접근이 가능한 장소로 보아온 전통을 비판하며, 다양한 신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예배 공간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신앙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예배와 공동체 중심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배 공간 설계, 제의적 실천, 리더십 구조 전반에 대한 재구성이 신학적·실천적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신성한 시간과 장애인의 위치에 관한 논의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신성한 시간(sacred time)'은 종말론적 완성과 구원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특히 종말론적 시간 개념은 종종 신체적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통

해 구현되었으며, 이는 장애를 일시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결핍 상태로 간주하는 신학적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홍덕(2010)은 이사야 35장 5~6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이 신체적 완전성과 거룩함을 연결짓는 상징 구조로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절은 현대 교회 내 ‘치유 사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장애인을 ‘병에서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신앙 실천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시간 개념은 장애인의 현재적 삶과 존재를 축소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종말적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는 대상으로만 간주되거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대’로 자리매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고통과 시험의 상징으로 고정시키며, 그들의 현재적 주체성과 신앙적 동역자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는 이러한 관점을 전복하는 중요한 전례를 제공한다. 바울은 신체적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세 번이나 드렸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하며, 약함을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고 선언한다. 이 구절은 신성한 시간의 의미를 신체적 완전성의 회복이 아니라, 현재의 몸 그대로 신앙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한다. 학자들 간에는 이 구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마가복음 10장 46~52절의 바디메오 서사는 예수의 치유가 단지 기능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부른 자’이자 공동체 안에서 이름을 가진 주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서 안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그가 직접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은 예수가 단순히 시각을 되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의 주체성과 위치를 회복시켰음을 상징한다.

결국, 엘리아데(Eliade, 1959)가 제시한 신성한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나 정화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종교적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면, 장애 신학은 이에 대해 중요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신성한 시간은 신체적 변화의 전제가 아니라, 다양한 몸과 경험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수용되는 공동체적 시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해석은 종말론적 치유가 단순한 신체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회복과 존재론적 수용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3. 장애 신학적 해석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

기존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질서’는 종종 특정한 신체적 조건과 연결되었고, 이는 장

애인의 존재를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정상적인 신체’가 거룩함과 연결되고, 신앙의 완성은 신체적 회복이나 결핍의 치유를 통해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장애인의 현재적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신성한 공간 역시 정해진 신체 기능을 전제한 장소로 구조화되었으며, 신성한 시간 또한 종말론적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배제 구조를 비판하며 장애 신학은 새로운 신학적 인식의 틀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질서’를 단일한 신체 기준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이 공존하고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감각적 실천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예 배당의 물리적 구조, 설교와 예전의 언어, 공동체 구성의 전제가 되는 신체성에 대한 암묵적 규범들 모두가 장애인의 몸을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대열(2006)은 “장애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며, 신학은 이에 대해 해석하고 실천을 제시해야 한다”(최대열, 2006, pp. 152-153)라고 지적하며, 장애가 단지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학적 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9장의 바디메오 이야기 역시 ‘기적의 치유’로 환원되기보다는, 공동체로의 주체적 복귀라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예수는 단지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존재’로 회복시켰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재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함을 드러낸다. 기존 신학에서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과 결합되어 장애인을 주변화해 온 것에 대해, 최대열(2006)은 요한복음 9장의 해석을 통해 “예수는 장애를 죄와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지으며, 그 존재 자체를 통해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주장한다(최대열, 2006, p. 165).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치유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현재의 몸 그대로 신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결국 장애 신학적 해석에서는 신성한 질서를 특정한 신체 상태에 고정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신앙적 의미를 지닌 몸과 감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포함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를 통해 신학 자체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비판적 실천이자 해석학적 전환이다. 신성한 공간은 비장애 중심의 공간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몸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적 공간이어야 하며, 신성한 시간 역시 ‘회복’이나 ‘치유’가 아닌, 지금 여기의 몸 그대로 존엄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신학이 장애인의 존재를 단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신학 실천을 재편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을 요청하며, 기존 신학의 보편성과 정상성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I. 제 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엘리아데의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을 장애 신학과 연결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신학적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 신학이 신학적 개념을 비판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신학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장애 신학이 치유와 구원 담론 속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규정했던 방식을 탈 구축(deconstruction)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종종 장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거나, 장애를 신학적 은유(metaphor)로만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장애가 배제된 것이 단순한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 형성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의 논의를 보다 근본적인 개념 비판의 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장애인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 장애학과의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즉, 본 연구는 신학적 개념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실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 신학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분석하고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가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신체적 완전성과 연결된 방식으로 장애인을 배제해 왔음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장애 신학적 접근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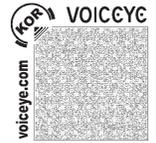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특정 본문(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정 본문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성경 내 다른 본문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경 본문을 포함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실증적인 데이터나 장애인의 실제 신앙적 경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론적 논의가 신앙 공동체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초점이 서구 신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장애 신학에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장애 신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서구권 기독교 전통에서 장애와 신성한 질서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이 보편적인 신학적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보다 확장된 텍스트 분석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장애 신학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기독교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온전한 신앙적 주체로 포용하는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욱. (2014). 질적 연구유형별 정당화 논거 탐색: 내러티브 연구법과 담론분석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1), 55-76.
- 김은아, 최송식 (2021). 언론에 나타난 정신장애인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53, 33-61.
- 김홍덕. (2010). 장애신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대장간.
- 신호재. (2019). 종교현상학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현상학적 환원 - M. 엘리아데의 『성과 속』에서 ‘속(俗)’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73, 69-104.
- 신혜진. (2000). 한국 기독교의 종교성 비판: ‘신성’과 ‘거룩’의 개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희, 신호영. (2025). M.엘리아데의 『성과 속』을 통해 본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제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3(1), 107-123.
- 이재서. (2013). *성경과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임형권. (2018). 성스러운 역사와 구속사: 엘리아데의 유대-기독교 서사 해석. *문학과 종교*, 23(2), 73-92.
- 정아영. (2023). 장애신학의 시작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25.
- 채은하. (2020). 부적절한 장애인 호칭들의 문제와 대안-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2(2), 37-59.
- 최대열. (2006). 예수의 장애 해방 선언: 요한복음 9장을 토대로 한 장애(인) 신학의 시도. *한국조직신학회*, 17, 149-174.
- 최대열. (2011). 장애인의 제사장직 제외 규정에 대한 재해석-레위기 21장 13-24절에 대한 장애인 식학적 변증. *한국조직신학논총*, 30, 333-362.
- 최대열. (2015).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 Allen, D. (1978). *Structure and Creativity in Religion: Hermeneutics in Mircea Eliade's Phenomenology and New Directions*. Mouton Publishes.
- Brock, B. (2021). *Disability: Living into the diversity of Christ's body*. Baylor University Press.
- Creamer, D. B. (2009). *Disability and Christian theology: Embodied limits and constructive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iesland, N. L. (1994).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 Abingdon Press.
- Eliade, M. (1959). *Methodological Remarks on the Study of Religious Symbolism*. The

- History of Religions: Essays in Methodology*. Eds. Mircea Eliade & Joseph M. Kitagaw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kel, H. (1901). *Genesis*. Vandenhoeck & Ruprecht.
- Reynolds, T. E. (2008). *Vulnerable communion: A theology of disability and hospitality*. Brazos Press.
- Yong, A. (2011). *The Bible, Disability, and the Church: A New Vision of the People of Go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bstract

Disability in the Bible and the Sacred Order of Exclusion

: A Study Based on Eliade's Concept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Chae Min*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structure of sacredness in Christian thought through the lens of Mircea Eliade's concept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with a specific focus on its implications for disability. Historically, Christian theology has framed the sacred based on normative physical and emotional conditions, often marginalizing or excluding disabled individuals from full participation in religious life. By employing a hermeneutic methodology, this paper integrates symbolic criticism and discourse analysis to explore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bodily difference within biblical narratives. The analysis focuses on five key scriptural passages-Exodus 4:10~12, Leviticus 21:16~24, Isaiah 35:5~6, John 9:1~3, and 2 Corinthians 12:7~10-tracing how the sacred order has been theologically encoded to function in exclusionary ways toward disability. Drawing on Eliade's theory of spatial and temporal hierophany, the study critiques how sacred space and time have historically been defined through ableist norms.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isability theology, particularly in its emphasis on embodied subjectivity and spiritual agency, the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theological framework in which sacredness is reimagined through the lived realities and sensory experiences of disabled persons. By destabilizing the symbolic hierarchies that render disability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as incompatible with holiness, this research opens up possibilities for a more inclusive sacred order. Ultimately, the study contributes to inter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disability studies, offering a theological critique of exclusionary symbols while laying the groundwork for a more just and inclusive Christian ecclesiology.

Keywords : Mircea Eliade, Sacred and Profane, Disability Theology, Disability and Religion, Symbolic Exclusion, Sacred Space, Biblical Hermeneutics, Embodied Spirituality

논문 투고 : 2025.03.24.

논문 심사 : 2025.05.29.

게재 확정 : 2025.06.13.
